

2002년도 양돈분야 농림사업시행지침 주요내용

◇...농림부는 2002년도에 추진할 농림사업시행지침을 작년 말에 발표하고 금년 1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지에서는 양돈농가 및 양돈관련분야 종사자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농림부가 2002년도에 중점 추진할 농림사업시행지침중 양돈농가가 지원받는 사업 위주로 주요 사업내용과 사업비 지원계획을 요약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고, 2003년도에 사업지원을 받고자 하는 분은 기한내에 해당 관청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농림부 또는 대한양돈협회(전화 02-571-9751)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 사료사업지원(자율)

1. 사료제조시설 및 원료구입지원

가. 자가배합사료제조

1) 지원대상자 : 축협조합, 영농조합법인, 협업체, 양축농가

2) 개소당 사업비

○제조시설 : 430백만원(용자 70% : 301백만원, 자담 30% : 129백만원)

○제조장비 : 23백만원(용자 70% : 16백만원, 자담 30% : 7백만원)

3) 용자조건

○자가배합사료제조 : 연리 5%,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

○사료원료 구매자금 : 연리 5.5%, 1년거치 일시 상환(사료원료구매자금은 사료 관리법에 의한 사료제조업 등록업체에만 지원)

4) 2002년도 사업비

○자가배합사료제조(제조시설 5개소 2,150백만원, 제조장비 100개소 2,300백만원) ○사료원료 구매자금 : 24,576백만원(전액 용자-사료제조업 등록업체)

5) 2003년도 사업신청 : 2002년 3월31일까지 시군을 경유하여 시도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자율)

가. 시책 및 추진방향

○축산분뇨는 최대한 퇴비·액비로 자원화 하되, 자원화가 어려운 경우 정화방류처리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 특정지역내 축산농가에 축산분뇨처리시설 우선 지원(한강·낙동강·영산강·금강의 4大江 유역과 새만금지역등)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 관한법률(이하 오분법“汚糞法”)에 의거 축산분뇨처리시설을 신

바르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런 문제들이 2002년에는 일정한 기준대로 고쳐져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 나라 양돈장들은 여름준비를 해마다 하고 겨울준비를 해마다 하고 있으며, 실제 그 피해를 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반복된 시설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한 것은 돈사의 시설이 기준과 다르기 때문이다. 겨울준비, 여름준비를 따로 하지 않는 돈사를 만들어야 한다. 환절기 증후군 또한 매년 반복되며 호흡기 질환 등 많은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이 또한 환기의 기준을 이해하고 정확히 실시하였을 때 해결할 수 있다.

무조건 시설을 보강하고 새로이 짓는 것만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시설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잘 운영하기 위한 물리학(物理學)적 지식 수준이 요구된다. 환기는 물리학을 기초로 한 응용과학이다.

2002년 돈가는 17만원~19만원대 사이가 유지될 듯

정찬길 농촌이 어려워졌다. 쌀 값이 내리고 채소 값이 하락함에 따라 벼농사, 채소농사를 하던 농업인들이 축산으로 전향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축산업 진입이 예상됨에 따라 기존 양돈농가들이 경영마인드를 새롭게 높이는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이다.

돼지 사육두수는 내년 크게 늘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001년 후반 모돈수가 크게 늘어 올해 후반 사육두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2001년 월별로도 계속 모돈수가 4~8% 늘어나는 추세를 보여왔으며, 일령별로도 지난 연말 2-4개월령이 2-3% 늘었다. 양돈농가는 이를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다. 올 돼지 수급구조는 특별한 변동요인이 없다면 2001년과 같이 그대로 따라 갈 것으로 보인다. 즉, 6월까지 19만원 선으로 유지될 것으로 본다.

2002년 세계 돼지 생산량은 8,490만톤으로 4.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공급량이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돼지고기 수출량은 380만톤으로 약 7%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미국은 오히려 7% 가량 줄어들고, 시장 점유율이 3%가량 낮아지는 반면, 캐나다, 브라질 및 EU의 수출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는 국제시장의 경쟁이 강화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일본의 세이프 가드(safe guard)가 3월말 해제된다. 지육 kg당 653엔에서 524엔으로 떨어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3월말 일본 육가공업체가 가공용(약 2만5천톤)을 일시 수입할 것으로 보여진다. 하반기 수출재개가 이루어지는 우리 나라에게는 불리한 조건이 될 것이다. 또 현재 냉장육은 미국, 냉동육은 EU가 점유하는 등 점유율이 정해져 있는 상황이다. 이를 뚫고 비집어 들어가야만 한다. 이 두가지 요인을 잘 풀어나가야만 우리 나라의 올해 돼지고기 수출이 성공적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본에 맞는 고품질 제품으로 경쟁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전반적으로 2002년도 돼지고기 수요는 현 수준 또는 더욱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월드컵과 지방자치단체 선거 등이 소비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신규 소비, 기존 소비촉진으로 돈가는 17만원~19만원대 사이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재개가 잘 될 경우 6월경 20만원도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수출이 여의치 않다면 과잉생산된 물량으로 인해 하반기 폭락의 우려도 있다. **양돈**

령의 표준화가 필요하다.

또 한편으로 종돈장의 위생수준을 공론화 시켜 다시 한번 짚어 봐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시설측면은 그룹관리 도입 등으로 올인 올아웃(all in-all out) 시스템이 늘어 갈 것이다.

이같은 생산성 향상 측면과 함께 2002년에 강조되어야 할 것은 전업규모 양돈농가의 변모다. 대규모 기업화된 양돈장과 경쟁하기 위해 현재의 전업규모 양돈농가는 반드시 변해야 한다. 네트워킹을 통한 연계가 최근 지역별로 일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 그 수

AI센터 인증제, 종모돈 능력차이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PSS유전자 검사를 반드시 실시토록 하고, AI센터 종사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AI센터에서 생산되는 정액의 질을 축산법상 구체적으로 표기할 필요가 있다. 질병 검사, 백신 접종 여부 등이 그것이다.

또 신규 종모돈의 도입을 위한 격리돈사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내용들이 우수AI센터 인증제도에 반영될 것이다. 이러한 우수한



유재일 위원장

“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시설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반드시 필요하다. 최근 문제시되고 있는 만성질병 또한 시설과 환경 측면을 무시할 수 없다. 양돈장들은 아직 열 보존 능력이 떨어지고, 창과 원치의 위치와 크기가 바르지 않으며, 원치를 사용하는 방식 또한 올바르게 않은 경우가 많다. 이런 문제들이 2002년에는 일정한 기준으로 고쳐져 나가야 할 것이다. ”

준이 미비한 상태이다. 또 농장 인력관리가 피라미드형이 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농장 컨설팅에 대한 체계가 잡혀야 할 것이다.

우수 AI센터 인증제도로 정액의 고품질화 추진해야

김인철 앞서 말했듯이 국가적 개량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핵돈군을 보유한 AI센터 마련이 필요하며, 올해 구체적으로 거론되어 시행될 것이다.

이를 위해 인공수정(AI)센터에서 공급되는 정액을 안전하고 고품질화 시키기 위해 우수

정액 공급체계가 자리를 잡을 때 능력이 우수하고 청정한 돼지의 생산이 가능할 것이다.

계절에 상관없는 돈사를 만들어 생산성 향상해야

유재일 우리 나라 양돈장 시설이 아직 불완전하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시설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반드시 필요하다. 최근 문제시되고 있는 만성질병 또한 시설과 환경 측면을 무시할 수 없다. 양돈장들은 아직 열 보존 능력이 떨어지고, 창과 원치의 위치와 크기가 바르지 않으며, 원치를 사용하는 방식 또한 올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축산물 등급판정제도를 고칠 필요가 있다. 또 한가지, 올해에는 농장에서의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가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올해 우리 양돈산업의 양적 성장은 클 것으로 예상되며, 수출이 잘 될 경우 돼지가격은 2,800원/kg(지육)까지 예상된다. 올해 국제 곡물가격은 계속 하락할 것으로 보이나, 환율의 상승으로 사료가격은 크게 변동이 없을 것이다.

이에 따라 전체적으로 올해는 우리 양돈농가에 있어서는 양돈업의 호기라 할 수 있겠다.

“ 돼지고기 품질면에서는 국내산 품질이 크게 떨어진 한 해였다. 품질 때문에 수입 삼겹살만을 찾는 곳도 늘어났다. 또 우려되는 점은 식육에 대한 소비가 닭, 오리, 어류 등으로 점차 옮겨가는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다. 최근 안동찜닭 등이 유행을 하기도 했다. 적색육에서 백색육으로의 소비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

그러나 한가지 양돈농가에 당부하는 것은 이같은 말은 전체적인 견해이며, 각자 농장에 맞는 경쟁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또 내년의 돈가가 높게 형성된다 하더라도 수입쇠고기의 대체제 효과로 지육 kg당 2,800원 이상 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각 분야별 모델링이 필요한 한 해

김형린 생산성 향상이 중요하다. 2002년도는 구조적으로 우리 양돈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틀을 잡는 한 해가 되어야 할 것

이다. 현재 상황에서는 만성질병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 등 해답을 찾기가 힘들다. 시일이 걸리더라도 분야별로 구조적인 틀을 잡아가는 해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바램이다.

돼지고기 수출을 위한 농장에서 도축장, 도체등급 판정까지 모든 과정의 연결된 체계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 양돈은 외국의 모델링을 통해 표준 등지방, 사료 배합비 등을 인용·이용하고 있으나, 외국이라 해도 북미와 유럽이 서로 크게 다르고 우리와도 맞지 않다. 우리 나라의 내부 조사를 통해 구조



김 태 경 지점장

적 모델링 작업이 필요하다.

상반기는 구제역, 하반기는 돼지콜레라 발생 위험 시기

이재춘 2002년 양돈산업은 크게 첫째, 양돈농가의 질병 예방과 생산성 향상, 둘째, 전업농 농가의 경쟁력 제고가 과제라 할 수 있다. 질병예방과 생산성 향상은 서로 조화가 맞아야 한다. 올해 상반기는 구제역, 하반기는 돼지콜레라 발생 위험시기다. 농장마다 소독, 백신, 이동차량 방역 등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농장들이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역요

고 있으며, 양적으로는 충분히 성장하였다. 이 제는 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인공지능센터 간의 종모돈 능력, 기술수준, 서비스 등 차이가 크다.

현재 AI센터는 허가제에서 시군 등록제로 바뀌어 전문지식이 없어 관리가 어렵다. 농림부의 관리가 필요하다. 지난해 11월부터 12월 초까지 축산기술연구소와 농림부가 공동으로 시범점검을 실시했다. 1월말쯤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역시 PRRS 양성반응을 보이는 등 질병에 안전하지 못하고, 능력도 낮게 나오

올해도 여러 가지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다고 본다. 올해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상반기는 '방역', 하반기는 '수출' 이슈 - 돼지 900만두 넘을 듯

강세원 2002년 양돈산업의 이슈는 상반기 '방역', 하반기 '수출'이라고 본다.

월드컵은 소비확대의 장점도 있지만, 방역에 허점이 드러나는 위험요인이 더 크다. 우리 푸리나에서는 방역 캠페인 등을 예정하고 있



김형린 대표

“**생산성 향상이 중요하다. 2002년도는 구조적으로 우리 양돈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틀을 잡는 한해가 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상황에서는 만성질병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 등 애담을 짚기가 힘들다. 시일이 걸리더라도 분야별로 구조적인 틀을 잡아가는 해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바람이다. 돼지고기 수출을 위한 농장에서 도축장, 도체등급 판정까지 모든 과정의 연결된 체계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는 곳이 있었다. 이를 계기로 AI센터에 대한 개선을 실시해 나갈 것이다.

또한 단속과 함께 우수 AI센터에 대해서는 인증제를 실시하여 각종 자금지급 등에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며, 또한 축산기술연구소 중심으로 국가적인 돼지를 개량하여 고능력 종돈을 보급할 것이다.

.....

김동성 지난 해 결산은 이것으로 마치고, 2002년 우리 양돈산업에 예상되는 이슈, 문제점, 대책 등에 관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란다. 오는 봄철 구제역 재발을 막아야 하며, 올해 돼지 사육두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다. 또 중요한 것은 환율이다. 수출의 부가가치가 엔화 가치하락으로 인해 떨어지고, 환율로 인해 사료가격이 상승될 수 있다. 환율은 더욱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올 한 해 우리 양돈산업에 여러가지 어려운 요소들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야 할 것이다.

내년 돼지 사육두수는 현재보다 더욱 늘어나 900만두를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출 위주의 양돈산업이 된다면 1,000만두 이상되어야 한다. 수출돈육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우수품질(20일 더 키워 팔 경우)일 경우 생산비를 회수 받을 수

개가 상회하는 브랜드가 생겼다. 브랜드 중에서는 대상 하이포크가 독주했다. 2, 3위를 나타내었던 목우촌과 한냉은 합병과 매각 등으로 인해 다소 위축되었다.

돼지고기 품질면에서는 국내산 품질이 크게 떨어진 한 해였다. 품질 때문에 수입 삼겹살만을 찾는 곳도 늘어났다. 또 우려되는 점은 식육에 대한 소비가 닭, 오리, 어류 등으로 점차 흘러가는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다. 최근 안동찜닭 등이 유행을 하기도 했다. 적색육에서 백색육으로의 소비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대책

❗ 국가적 종돈개량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핵돈군을 보유한 AI센터 마련이 필요하며, 올해 구체적으로 거론되어 시행될 것이다.

이를 위해 인공수정(AI)센터에서 공급되는 정액을 안전하고 고품질화 시키기 위해 우수 AI센터 인증제, 종모돈 능력사이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을 세울 필요가 있다. 가정용 요리보다는 식당용 삼겹 이외의 소비를 위한 메뉴 개발이 필요하다. 돈가스 시장은 다소 늘었으나, 안주로 대체가 안돼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국제 사료곡물가, 환율의 변동으로 사료가격의 변동이 심했던 해

강세원 지난 해는 양돈산업 외적인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은 한 해였다.

이제 양돈산업도 타 산업과의 연계를 고려해야 할 시점이다. 지난 해 사료곡물가의 변동으로 사료가격 변동이 심했으며, 현재는 엔화

가치 하락 등 환율변화가 큰 이슈가 되고 있다. 또 지난 해에는 양돈불황으로 다시 사료 외상이 많이 늘어났던 한 해였다.

그리고 불황과 한냉 등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지방 양돈농가들이 출하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그러나 유럽 광우병 파동 등 호재도 있었다.

올해는 첫째, 돼지고기 수출에 대비하여 국내산 돼지고기의 부가가치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 둘째, 양돈장의 재무구조를 어떻게 내실 있게 만들 것인가? 두가지를 해결하는데 노력



김인철 연구관

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돼지 생산비는 농장마다의 생산성에 초점을 맞추어 접근해야 한다. 현재처럼 생산비를 규모별로 맞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AI센터의 질적 성장을 준비했던 한 해

김인철 이제 돼지 번식문제는 인공수정을 때 놓고 말할 수 없다.

94년도 이후 인공수정이 계속 늘어 지난 연말엔 70%에 달하고 있다. 500두 이상 전업규모 양돈농가는 협회 조사결과 80% 이상으로 나타났다. 전국에 62개 인공수정센터가 운영되

많은 관심이 쏠렸던 한 해였다.

양돈농가의 시설투자의 인지도가 커졌다. 만성질병으로 인한 양돈장 생산성 저하를 근본적으로 막아 질병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 시설투자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또한 전산관리부분에 있어 컴퓨터가 만능이라는 농가들의 기대심리가 다소 줄어들고 직접 실천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늘었던 한 해였다.

그러나 앞으로 번식생산성과 생산성 관리를 위해 전산은 모든 농가에 있어 필수적이며,

가 17두로 나왔지만 20두 이상 농가도 많은 반면에 아주 낮은 생산성을 나타내는 농가들도 있어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작년에는 구제역 청정국 조기인증과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중단을 실현한 획기적인 한해였다.

육가공품이 국산 비선호부위로 대체되었으며, 목살·갈비 소비 대책 세워야

김태경 지난 해에는 광우병, 구제역 등



이재춘 원장

“ 최근 초기 이우지돈사가 많이 설치되고 있다. 특별관리를 통해 그 효과가 좋다. 이를 포함하여 지난해는 양돈장 시설쪽에 많은 관심이 쏠렸던 한 해였다.

양돈농가의 시설투자의 인지도가 커졌다. 만성질병으로 인한 양돈장 생산성 저하를 근본적으로 막아 질병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 시설투자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

지속적으로 관심이 필요하다.

오제스키가 얼마나 퍼져 있는지 의심스럽다. 지난 해는 급성 전염병이 상대적으로 줄고 만성소모성 질병인 PRDC, PMWS가 늘어나 양돈농가에 깊이 인식되었던 한 해였던 것 같다. 그 가운데 설사병은 다소 줄어들었다. 돼지콜레라, 구제역 등으로 인한 철저한 방역 활동이 부수적인 효과를 나타낸 것 같다.

회장염이 생산성에 큰 영향을 주고 있으나, 회장염은 종돈장에서부터 물어오는 것으로 보여진다. 올해는 종돈장 위생이 대두되어야 할 것이다. 생산성 또한 협회에서 조사한 500두 이상 전업규모 이상 양돈농가들은 평균 PSY

으로 수입 쇠고기 수입이 줄고 수입육의 판매가 줄었다.

돼지고기 또한 수입육 소비가 줄어들었다. 육가공품 또한 수입육을 사용하지 않고 거의 전량 국내 비선호부위로 대체되었다.

그러나 일반적인 소비는 삼겹살의 인기가 독주하는 한 해였다. 지난 해에는 와인삼겹 등 현대 감각에 맞고 젊은 층을 노리는 삼겹살이 크게 증가하였다. 또 대형 마트 등이 활성화 되면서 냉장 삼겹의 소비가 크게 증가하였다. 지난해에는 목살 부위의 소비가 많이 줄었고 갈비 또한 소비가 크지 못했다.

또 브랜드화가 성숙되어 돼지고기에만 100